

2011년 서울경제 전망

2010. 12. 13 제78호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형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범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대내외 여건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
- II.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 III. 2011년 서울경제 전망
- IV. 시사점 및 정책제안
- 부록: 2010년 4/4분기 주요 조사 결과

요 약

2010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회복 속도가 2011년에는 둔화될 전망

2010년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대비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 역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계무역 불균형 문제와 환율,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성 문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2011년 경기회복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하반기 서울의 소비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형소매점 판매액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산업생산 증가율 또한 2009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반전되면서 2011년 서울경제의 회복 속도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둔화될 전망이다. 2010년 중 서울의 총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폭 역시 축소되고 있으나 2010년 하반기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의 부진 등으로 향후 채용규모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2011년 고용시장의 빠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는 회복세를 보인 반면 기업 체감경기는 소폭 악화

서울시 가계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0년 4/4분기에 소비 지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미래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2010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상회하였다. 반면,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 등 서울 기업의 체감경기는 하락 반전하였다. 특히 2010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기준치(100)를 상회하던 「업황전망지수」가 89.7을 기록하여 향후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았던 서울의 비제조업 부문의 전망치가 하락 반전하며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회복세 악화 방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과 고용문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2011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된다. 2010년 하반기 중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는 민간소비가 다소 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비제조업의 체감경기지수와 경기전망지수가 하락하여 서비스업과 소비 위주인 서울경제의 2011년 성장률은 2010년보다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2011년 경기회복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정책의 이원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의 합리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단기적으로 서민생활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10년 하반기에 회복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I. 대내외 여건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

세계 무역구조의 재편(global rebalancing), 주요국의 환율기조, 유럽국가의 재정여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주요 대내외 변수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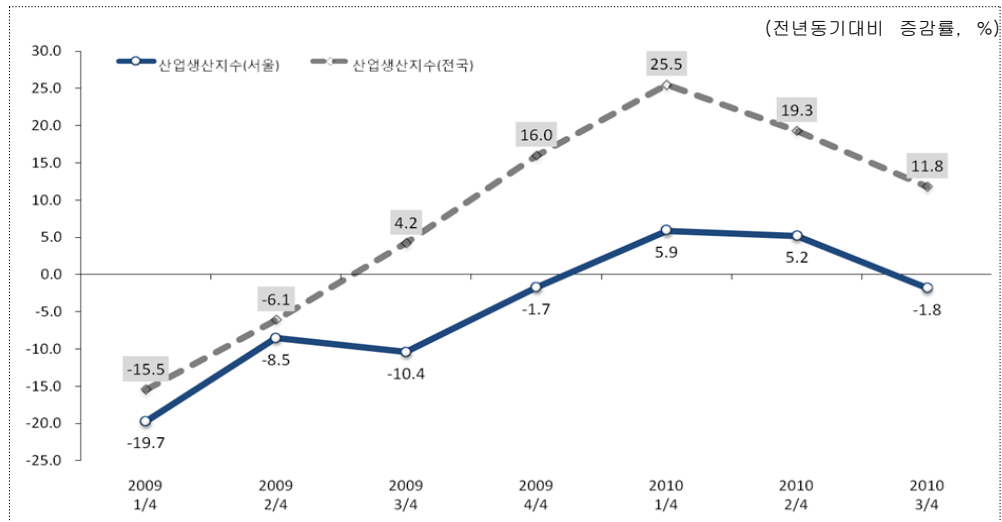
-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모두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를 시현하였지만 2011년에는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전망보고서'를 통해 2011년 세계경제가 2010년 4.8%에서 0.6%p 낮아진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최근 전망자료에서 2011년 우리나라 경제가 2010년 경제성장 전망치 6.1%보다 평균 2.1%p 낮은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G20 서울정상회담에서 환율문제에 대한 합의가 원칙적 수준에서 이뤄짐에 따라 환율과 관련된 문제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세계 무역불균형 문제, 기축통화 다변화 논의, 주요국의 자국통화 평가절하 등 세계 각국의 환율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
 -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 호조로 인해 2010년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인 우리나라는 원화의 상대적인 평가절상이 나타날 경우 수출 감소 등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
- 2010년 상반기 그리스 재정건전성 문제 이후 11월 아일랜드가 850억 유로 규모의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다시 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감 대두

-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 국제금융펀드의 운용지표로 활용되는 MSCI EURO 지수도 2010년 11월 전월대비 13.1% 하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 반영
- 연평도 피습사태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금융시장에 재 부각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 채권, 신용평가 등 금융 변동성이 확대
 - 지금까지 북한도발에 의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비교적 단기적, 제한적 영향을 받았던 것에 비해 이번 연평도 피습사건은 우리나라의 북한리스크를 크게 부각시키는 모습
 - 11월말 KOSPI는 1,900선이 붕괴되고,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국고채프리미엄이 122bp를 기록하는 등 리스크에 대한 변동성 확대

2010년 하반기 서울의 소비 · 고용 회복세 유지, 생산 회복세 주춤

- 서울의 산업생산은 상반기 회복세의 성장탄력이 점차 약화되는 조짐
 - 2010년 3/4분기 서울의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8% 하락하여 2010년 이후 형성된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
 - 최근 산업생산 둔화는 소비재 생산 증가율이 축소되고, 자본재와 중간재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기인
 - 2010년 3/4분기 소비재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하였지만 2/4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15.6%p 축소

- 산업생산에 선행하는 자본재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0.4% 감소, 중간재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하여 3분기 만에 하락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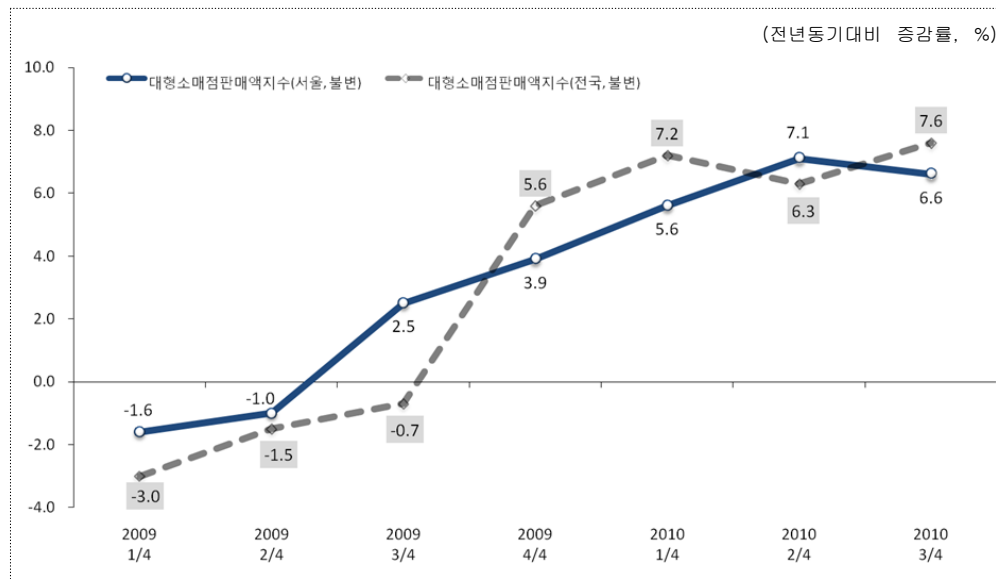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1]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 소비는 전반적인 성장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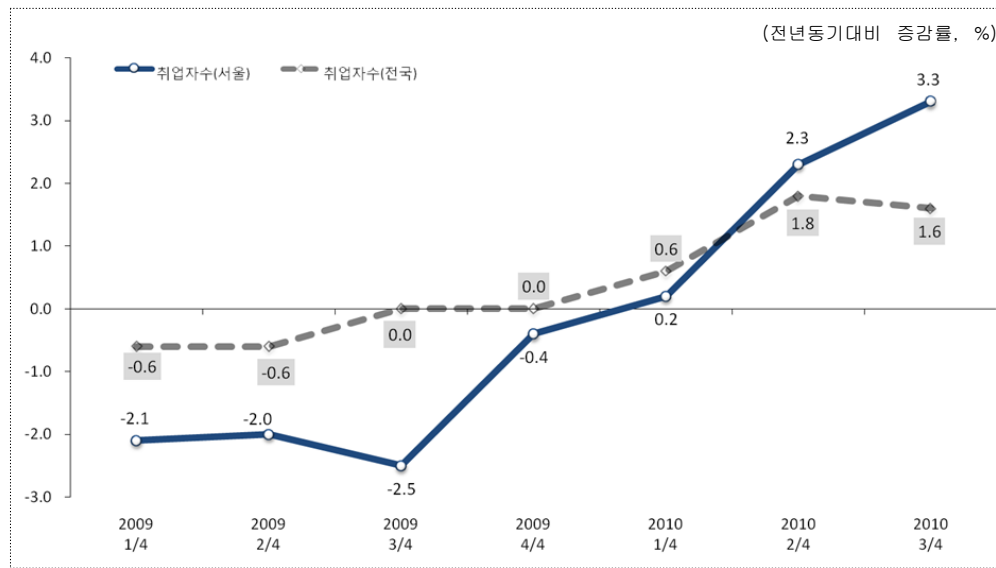
- 2010년 3/4분기 중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6.6%로 5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전월대비 0.5%p 하락
 - 이는 백화점 판매액이 2009년 3/4분기 이후, 대형마트 판매액은 2009년 4/4분기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최근 대형마트 판매액 증가폭 확대로 지속적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유지
- 서울의 개인신용카드 총사용액과 일평균 사용액 모두 전분기대비 증가
 - 서울의 개인신용카드 총사용액과 일평균 사용액은 각각 전분기대비 3.7%, 2.6% 증가
 - 서울의 비중이 약 40%인 전국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이용금액도 2009년 3/4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증가세 유지



자료 : 통계청

[그림 2]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 서울의 총 취업자수는 증가세 유지, 청년층 취업자수는 감소폭 축소
 - 2010년 3/4분기 중 서울의 취업자수는 1/4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인 전년동기대비 3.3% 증가
 - 2010년 10월 중 서울의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하여 9개월 연속 증가
 - 2010년 2/4분기 이후 전국의 취업자수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세 유지
 - 2010년 3/4분기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수는 2007년 4/4분기 이후 가장 감소폭이 작아 전년동기대비 0.8% 감소
 - 10월 중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하여 200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반전
 - 2010년 3/4분기 청년층 취업자수 감소 역시 전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 비해 고용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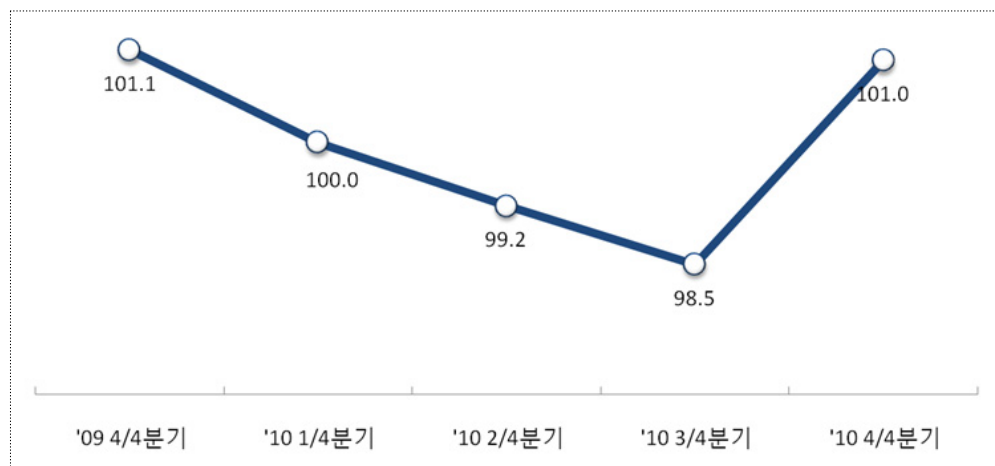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3] 서울과 전국의 취업자수

II.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는 3/4분기를 저점으로 빠른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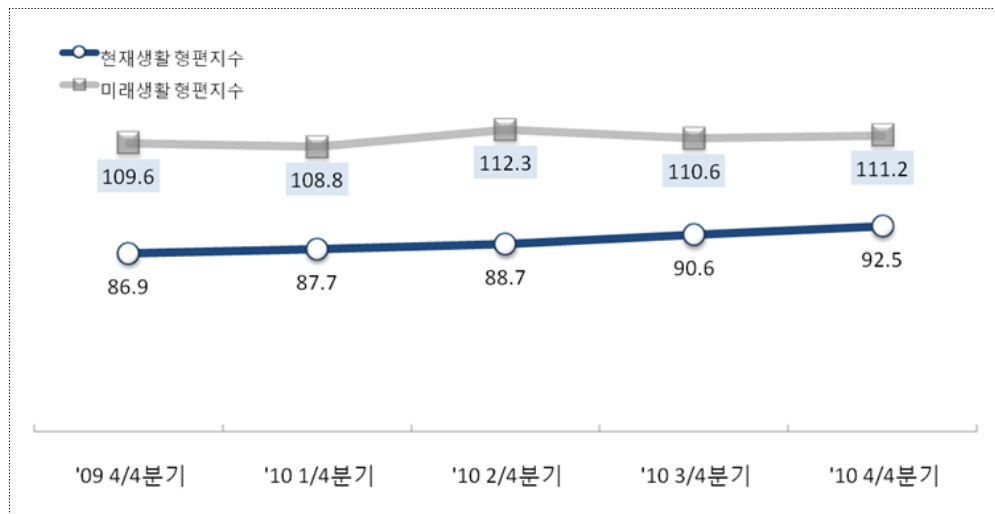
- 2010년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기준치(100)를 상회
- 서울시 가계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0년 3/4분기 98.5에서 4/4분기 101.0으로 상승
-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2009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상승 전환하여 2010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상회
- 2010년 경기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상황에서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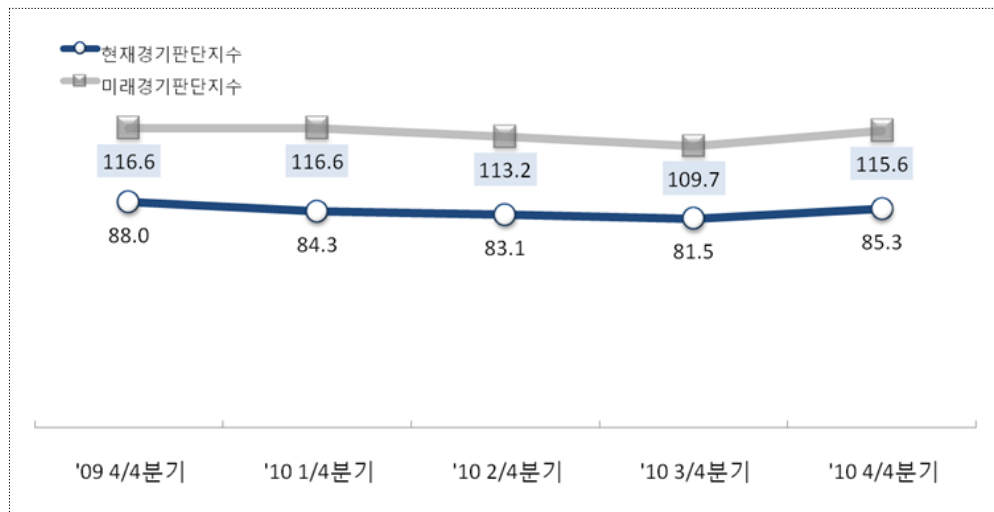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모두 상승
- 2010년 4/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각각 전분기 대비 1.9p, 0.6p 상승한 92.5와 111.2를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008년 4/4분기 이후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보다 낮은 수준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대비 상승으로 전환하여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 반영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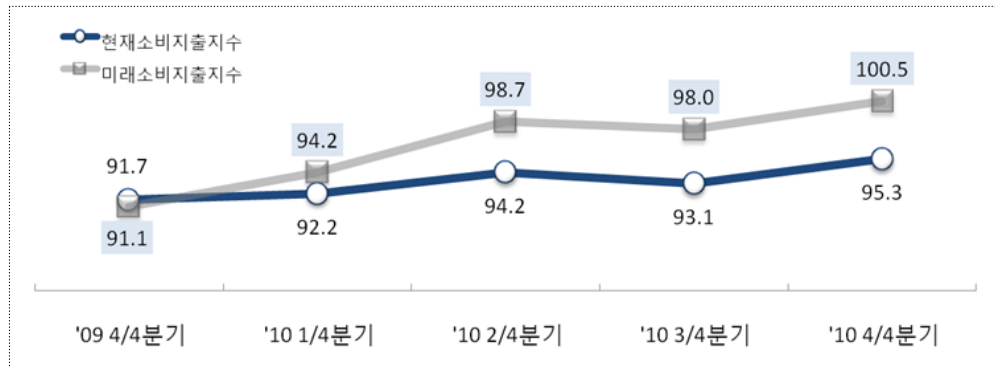
- 서울의 체감경기는 다소 침체된 상황이지만 전분기 대비 상승 반전
 -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대비 3.8p 상승한 85.3을 기록
 - 2009년 4/4 분기 이후 4분기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대비 상승 반전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현재 체감경기는 다소 침체된 것으로 조사
 - 2010년 4/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115.6을 기록하여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1년 후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
 - 「미래경기판단지수」 역시 3분기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대비 상승 반전



[그림 6]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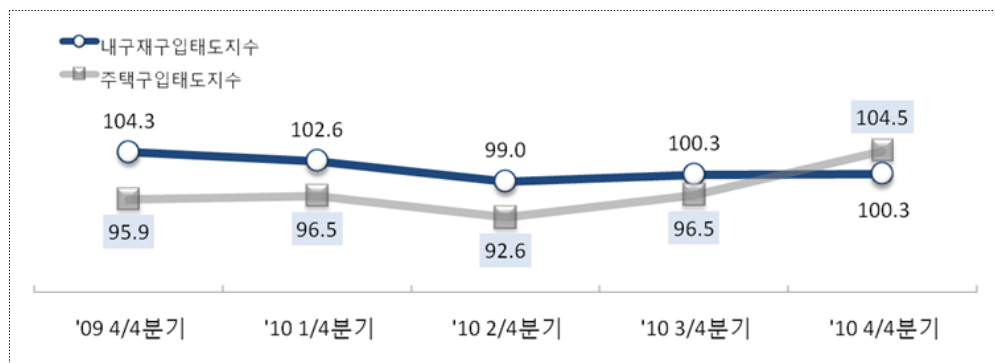
소비지출은 전반적인 회복세

- 2010년 3/4분기 다소 주춤하던 서울의 소비지출지수가 다시 상승하여 향후 전반적인 소비심리 개선 기대
 - 2010년 4/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대비 2.2p 상승한 95.3,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대비 2.5p 상승한 100.5를 기록
 -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 모두 2008년 4/4분기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 유지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 조사결과 '교육/문화비(115.1)', '교통/통신비(104.5)', '주거비(100.4)'는 지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분기대비 '주거비'는 0.8p 하락하였지만 다른 품목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두 전분기대비 상승하여 전반적인 소비심리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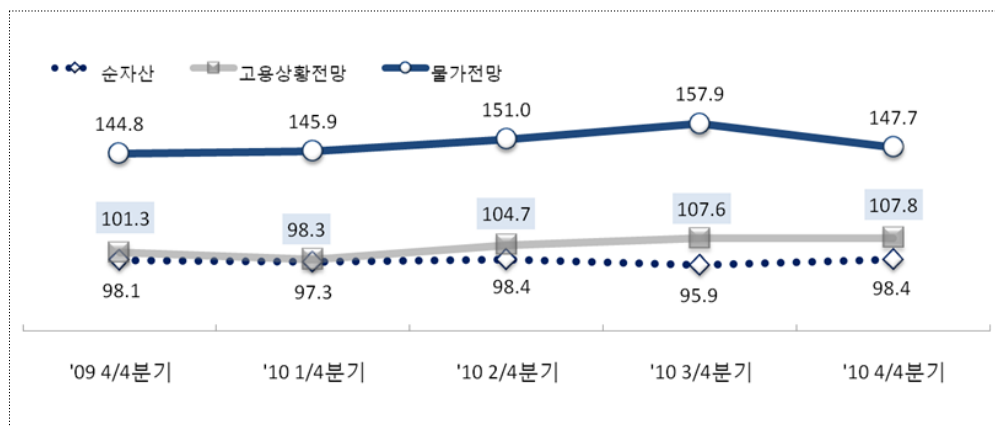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한편 2010년 4/4분기 서울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와 「주택구입태도지수」는 모두 기준치(100)를 상회
- 서울의 2010년 4/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와 같은 100.3을 기록하여 보험수준 유지
 - 2010년 2/4분기 기준치(100) 이하로 하락한 이후 2분기 연속 기준치 상회
 - 4/4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8.0p 상승한 104.5를 기록
 - 2009년 4/4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4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며 주택구입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0년 4/4분기에 큰 폭으로 상승



[그림 8]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 서울의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물가불안 심리는 다소 진정
- 2010년 4/4분기 서울의 「순자산지수」는 98.4로 2010년 3/4분기보다 2.5p 상승하고,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107.8을 기록
 - 특히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조사가 시작된 2008년 4/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여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
 - 「물가예상지수」는 전분기대비 10.2p 하락한 147.7을 기록
 -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2010년 3/4분기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여 물가불안감이 다소 안정된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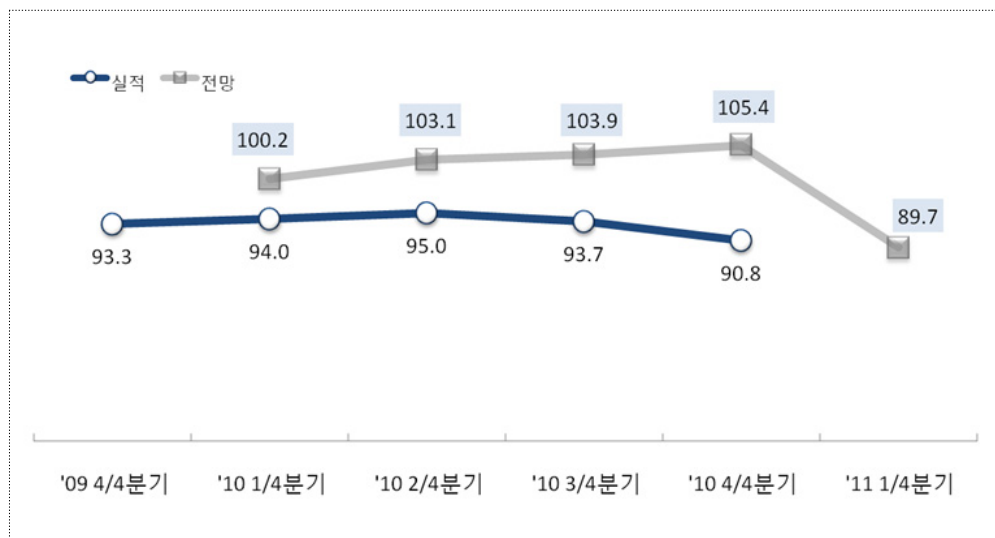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순자산, 고용전망, 물가예상지수

서울 기업의 현재 및 향후 체감경기는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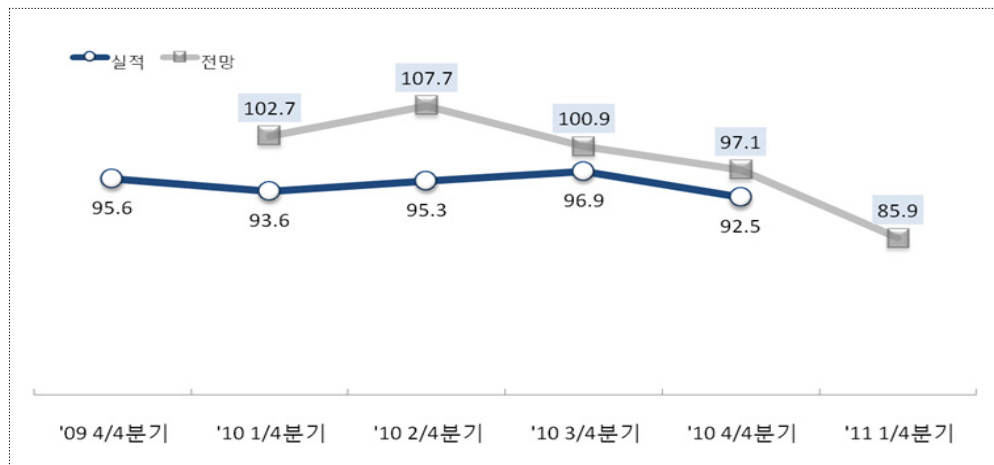
- 2010년 4/4분기 서울의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2.9p 하락한 90.8,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15.7p 하락한 89.7을 기록
- 2분기 연속 하락한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보다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 기업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 향후 기업의 업황실적 전망을 나타내는 「업황전망지수」는 2009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하회
- 경기회복 기대감에 비해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던 체감경기가 소폭 하락하였고,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등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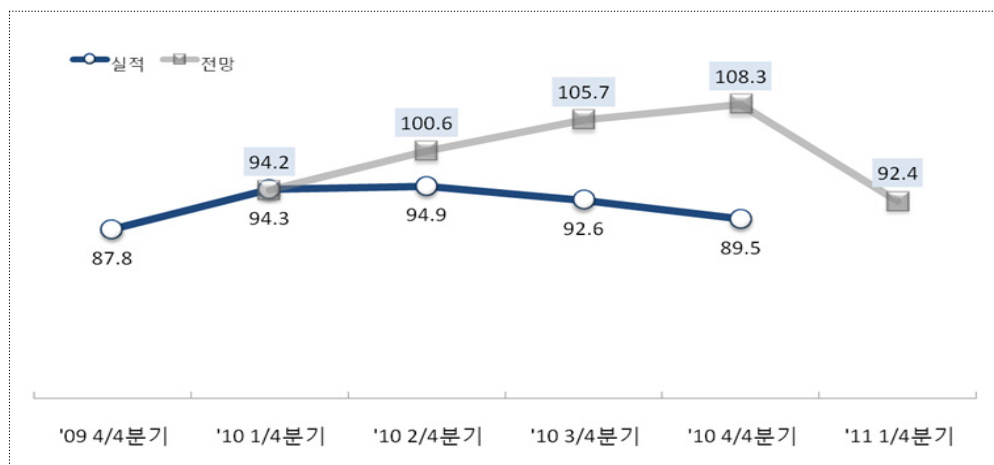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의 업황지수

- 2010년 4/4분기 서울의 「비제조업 업황체감지수」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여 하락 반전
- 「제조업 업황실적」은 92.5로 전분기대비 4.4p 하락, 「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11.2p 하락한 85.9를 기록



[그림 11] 서울의 제조업 업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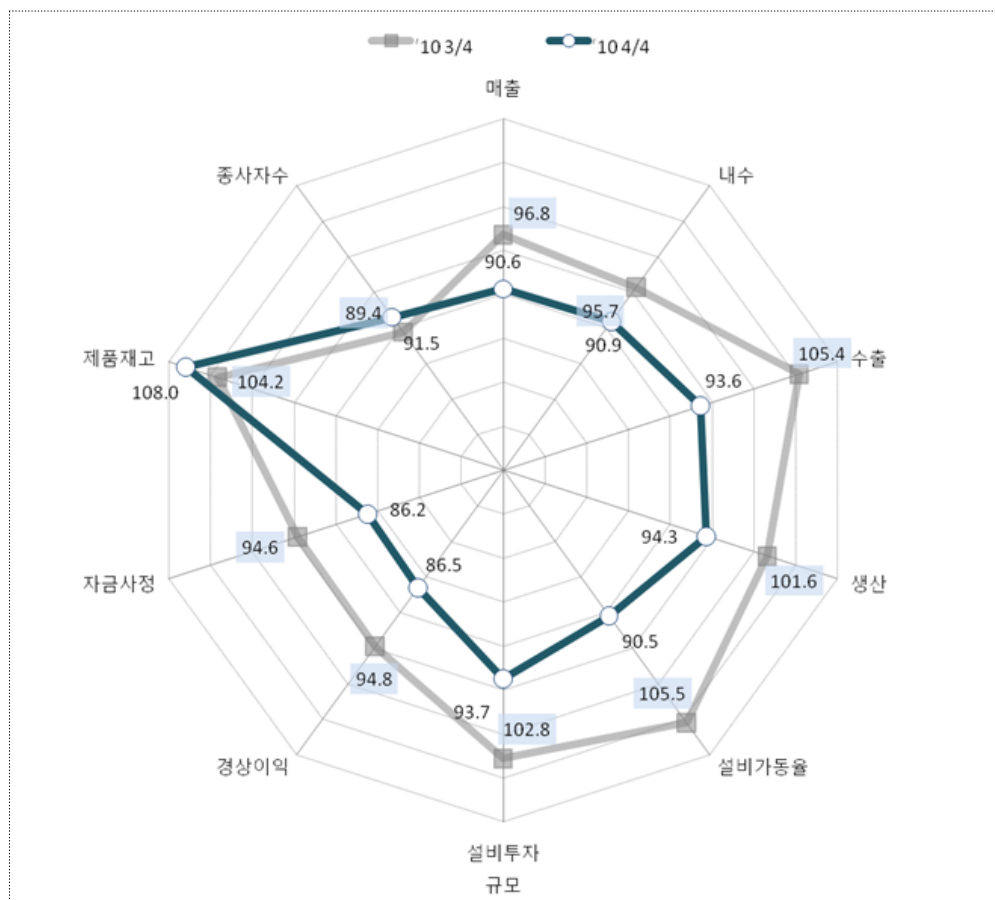
- 「비제조업 업황실적」과 「비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각각 전분기대비 3.1p, 15.9p 하락한 89.5와 92.4를 기록



[그림 12] 서울의 비제조업 업황지수

- 서울소재 기업의 매출, 내수, 수출, 설비가동률, 설비투자 규모 등 주요 경영지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조사
- 2010년 3/4분기 기준치(100)를 상회하던 수출, 생산, 설비가동률, 설비투자가 모두 하락하여 기준치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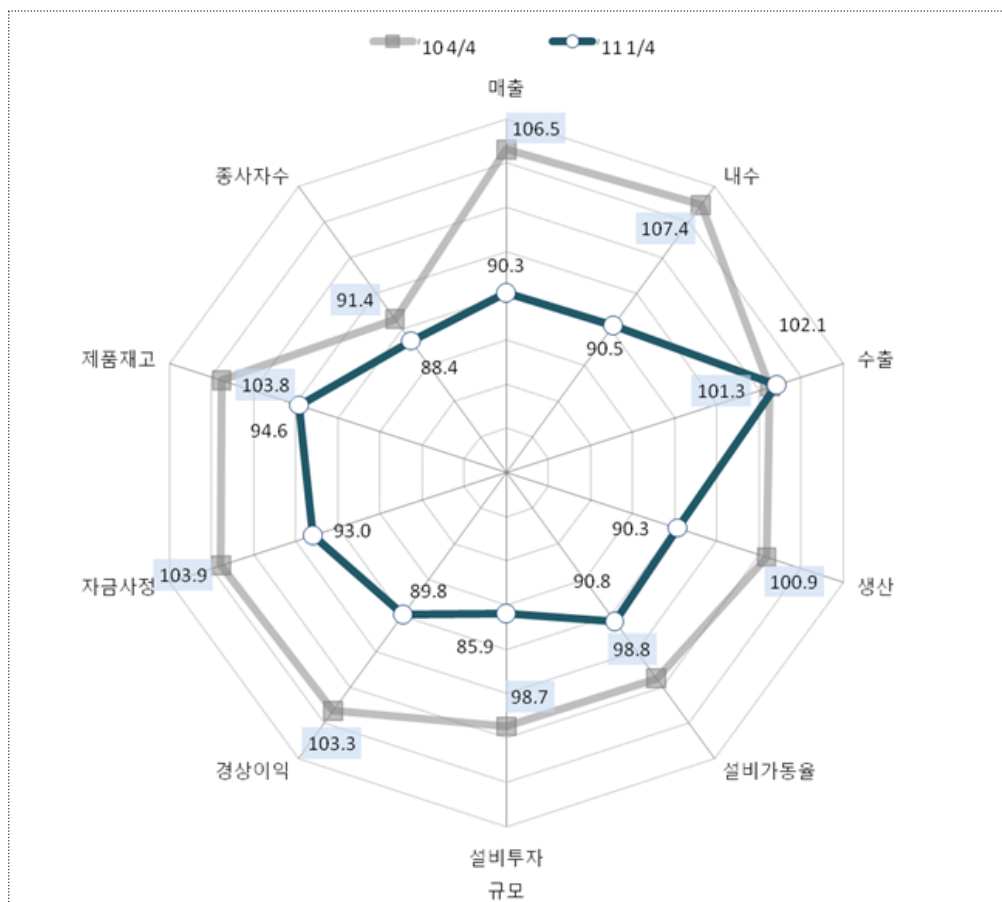
- 2010년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던 수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
- 경상이익과 자금사정이 전분기대비 각각 8.3p, 8.4p 하락하여 기업의 자금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



[그림 13] 서울의 각 부문별 실적 지수

- 서울소재 기업은 2011년 1/4분기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다른 부문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1/4분기 수출은 전분기대비 0.8p 상승한 102.1을 기록하여 기준치 (100)를 상회

- 반면 내수 전망은 전분기대비 16.9p 하락한 90.5로 내수부진이 매출 및 생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 전망이 다시 하락하여 2011년 상반기에도 서울의 고용 여건 개선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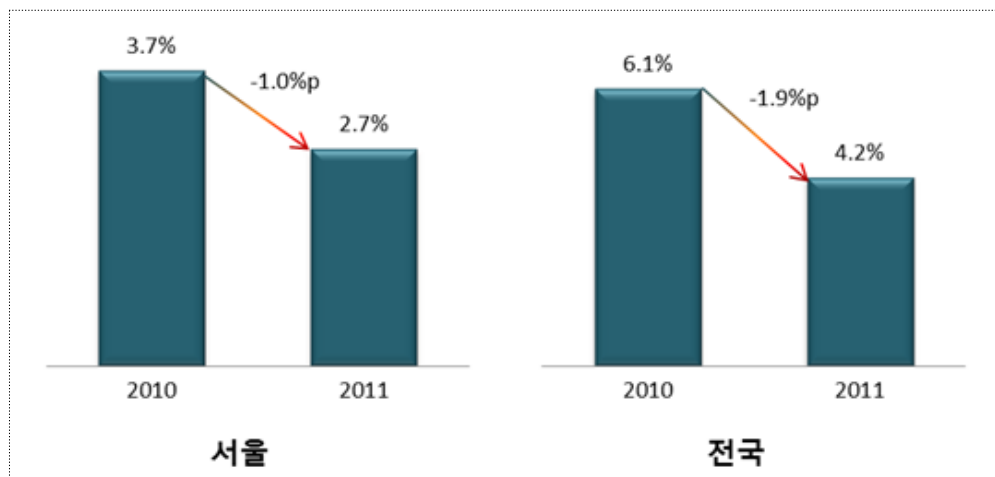


[그림 14] 서울의 각 부문별 전망 지수

Ⅲ. 2011년 서울경제 전망

2011년 서울경제성장률은 2.7%로 201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 2010년 서울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4%에 가까운 3.7%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2011년에는 성장률이 2% 후반으로 낮아질 전망
 - 서울의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로 2010년에 비해 1.0%p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경제구조 특성 상 내수의 회복세 둔화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
 - 최근 서울 비제조업 부문의 실적 및 전망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2011년 서울 경제성장의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서울의 하반기 경제성장률 둔화 폭(-1.0%p)은 전국(-1.9%p)보다는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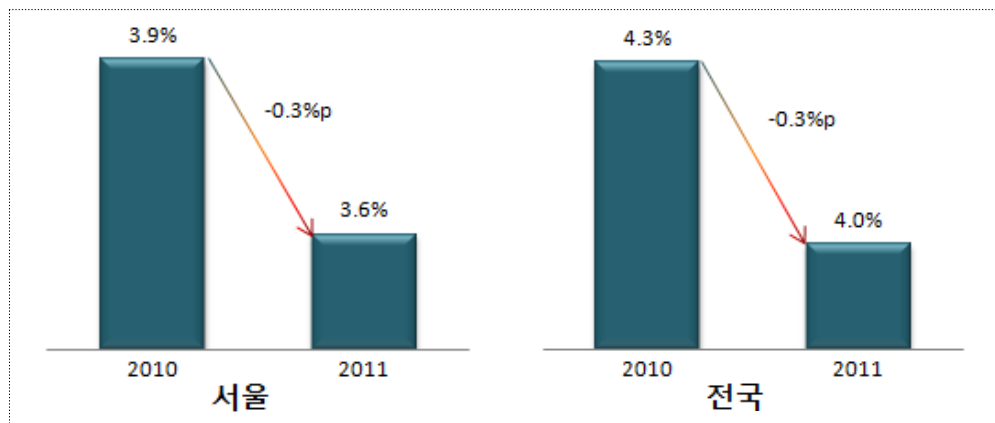


주: 서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KDI(2010. 11월), LGERI(2010. 9월), SERI(2010. 9월), OECD(2010. 11월), IMF(2010. 10월) 전망치 평균

[그림 15] 2011년 서울 및 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 서울의 2011년 민간소비지출은 3.6% 증가할 전망

- 서울의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으나 소비지출 규모의 증가 속도와 폭은 조정을 받으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4/4분기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전망은 기준치(100)를 회복하였지만 실적지수는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실질 소비확대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2011년 서울의 민간소비 지출규모 역시 증가폭이 조정되어 전국의 민간소비 증가율 4.0%보다 낮은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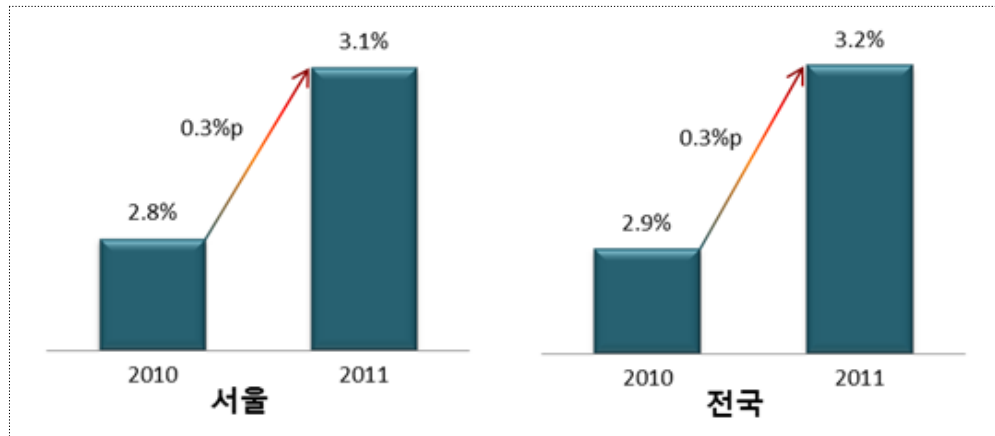


주: 서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KDI(2010. 11월), LGERI(2010. 9월), SERI(2010. 9월), OECD(2010. 11월), IMF(2010. 10월) 전망치 평균

[그림 16] 2011년 서울 및 전국의 소비 전망

□ 서울의 2011년 물가상승률은 2010년보다 0.3%p 높은 3.1%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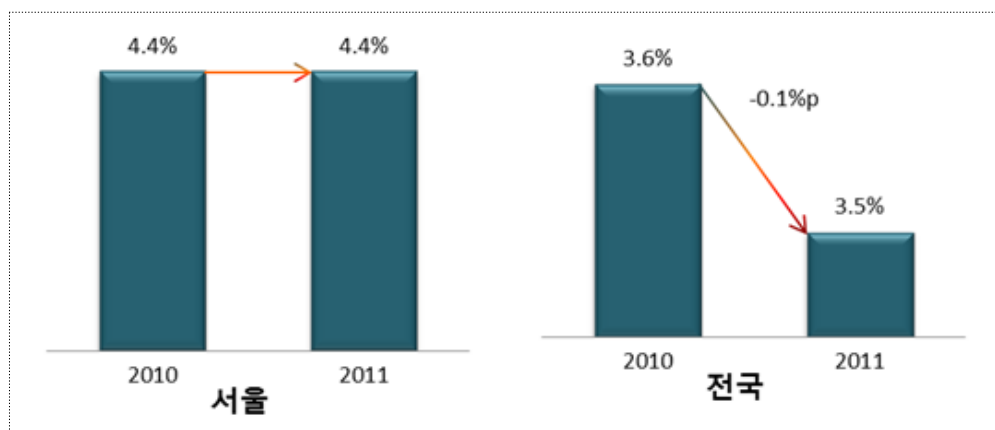
- 경기 회복세 유지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있겠지만 환율하락과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어 3%대 초반 수준에서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판단
- 개인서비스 부문의 가격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2010년 하반기에 나타난 곡물가격 급등세가 2011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



주: 서울은 서울시장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KDI(2010. 11월), LGERI(2010. 9월), SERI(2010. 9월), OECD(2010. 11월), IMF(2010. 10월) 전망치 평균

[그림 17] 2011년 서울 및 전국의 물가상승률 전망

- 서울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종사자수 전망지수」의 개선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2011년에도 고용시장의 빠른 개선은 힘들 것으로 판단
- 2010년 경제성장 효과가 고용시장에 반영되어 취업자는 증가하겠지만, 고용 여건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2011년 서울의 실업률은 4.4%로 2010년과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주: 서울은 서울시장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KDI(2010. 11월), LGERI(2010. 9월), SERI(2010. 9월), OECD(2010. 11월), IMF(2010. 10월) 전망치 평균

[그림 18] 2011년 서울 및 전국의 실업률 전망

Ⅳ. 시사점 및 정책제안

2011년 서울의 체감경기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

- 서울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전국과 동일하게 2011년 성장세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최근 3년간 서울의 연간 성장률이 3.4%인 점을 감안하면 2011년 경제성장 전망치 2.7%는 지표상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
 - 하지만 2011년에는 서울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내외 변동성이 큰 상황을 고려하면 지표상 경제성장과 실질 체감경기의 차이가 2010년보다 클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
 - 서울의 비제조업 실적지수 및 전망지수가 하락하고, 2011년 상반기에도 농축산물을 비롯한 신선식품류의 가격인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체감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2010년 하반기 서울의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과 산업생산이 둔화되고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빠른 고용여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2010년에는 서울의 총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하반기 청년층 취업자수 감소 폭이 축소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011년 1/4분기 서울소재 기업의 고용 전망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고용 여건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
 - 따라서 성장률 둔화가 체감경기 악화와 향후 성장 동력 약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적 측면에서 노력 필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민생활지원을 위한 단기적 재정집행의 확대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재정지출의 합리화를 추구할 필요
 - 최근 유럽국가의 재정위기가 다시 대두되면서 정부 및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하지만 2011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재정지출 축소는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지원 사업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또한 신규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증을 강화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
- 2010년 하반기에 회복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2011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과 여건 마련에 역량 집중
 - 최근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계층별, 연령별로 고용여건 개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연령별로는 청년층 취업이 부진, 계층별로는 건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의 고용이 부진한 상황
 -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취업 대책을 강화하고,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유지할 필요

- 서울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정책 유지
 - 서울시에서 11월 개최한 '2010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와 같은 서울시와 유관기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성과를 분석, 보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 시행 필요
 - 향후, 유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굴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 실시할 필요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di.re.kr

윤형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31

younh@sdi.re.kr

김범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76

kbs@sdi.re.kr

부록 : 2010년 4/4분기 주요 조사 결과

<표 1> 서울지역 소비자 태도 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09년 4/4분기	101.1	86.9	109.6	88.0	116.6	104.3	95.9
2010년 1/4분기	100.0	87.7	108.8	84.3	116.6	102.6	96.5
2010년 2/4분기	99.2	88.7	112.3	83.1	113.2	99.0	92.6
2010년 3/4분기	98.5	90.6	110.6	81.5	109.7	100.3	96.5
2010년 4/4분기	101.0	92.5	111.2	85.3	115.6	100.3	104.5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 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09년 4/4분기	91.7	91.1	98.1	101.3	144.8
2010년 1/4분기	92.2	94.2	97.3	98.3	145.9
2010년 2/4분기	94.2	98.7	98.4	104.7	151.0
2010년 3/4분기	93.1	98.0	95.9	107.6	157.9
2010년 4/4분기	95.3	100.5	98.4	107.8	147.7

<표 3> 서울지역 기업 경기 지수

구 분	실적					전망				
	'09 4/4분기	'10 1/4분기	'10 2/4분기	'10 3/4분기	'10 4/4분기	'10 1/4분기	'10 2/4분기	'10 3/4분기	'10 4/4분기	'11 1/4분기
매출	99.4	99.4	106.2	96.8	90.6	99.9	103.0	110.3	106.5	90.3
내수	99.9	99.9	106.5	95.7	90.9	99.8	102.8	110.6	107.4	90.5
수출	100.8	100.8	93.8	105.4	93.6	99.4	107.9	96.8	101.3	102.1
생산	104.6	104.6	102.0	101.6	94.3	106.7	113.4	105.0	100.9	90.3
설비가동률	97.4	97.4	100.4	105.5	90.5	105.3	104.0	104.1	98.8	90.8
설비투자규모	93.3	93.3	99.0	102.8	93.7	100.9	98.1	105.2	98.7	85.9
경상이익	90.3	90.3	102.7	94.8	86.5	101.3	92.7	107.4	103.3	89.8
자금사정	90.9	90.9	96.4	94.6	86.2	99.3	98.5	99.6	103.9	93.0
제품재고	105.8	105.8	97.8	104.2	108.0	104.4	107.7	100.5	103.8	94.6
종사자수	95.1	95.1	92.4	89.4	91.5	98.1	93.7	94.4	91.4	88.4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와 5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pm 3.1\%$ 임(2010년 4/4분기 조사 시점은 2010년 11월말).